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착한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목숨바쳐 지키고 돌보는 목자라는 것을 사순과 이 부활시기에 더욱 체감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응답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양들은 자기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의 모습을 알아보는 일은 참으로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참모습도 알기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 곧 목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과 귀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잘 모르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위한다는 맘으로 내편할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사랑을 몰라준다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내 맘을 몰라준다고 야속해 하고, 서러워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내 맘을 좀 알아주기를. 그래서 내 바램들이 이루어 지기를. 그런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는데 자꾸 파랑색만 사줍니다. 받고도 서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빨강색을 사줍니다. 그리고는 받고도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지 설명해 줍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양들이 원해도 양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운만큼, 아는 만큼 목자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목자를 알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목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에게 배웁니다. 목자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도 목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목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목자의 당부 귀여겨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귀기울이게 되고 서로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양 본당 양호준 델피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주일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 전례 중에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 55번 '착하신 목자'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4장 8절-12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묵 상 :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들도 회개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깨달아 세상에 전파하며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화답송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2독서 : 요한 1서 3장 1절-2절

안 내 : 요한 사도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해 줍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외적 속박으로도 파괴 될 수 없는 내부로부터의 만족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입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0장 11절-18절

강 론 :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4번 ‘주께 드리네’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을 알듯이
목자도 자기 양들을 압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한계와 결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절망의 어둠속에서도, 죄에 빠져 허덕일 때도,

언제나 주님은 사랑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깊이 알고 있단다.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들도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님을 아는데 힘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공소사목 성금

이점옥님

50,000원

이난희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1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처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보천서 치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018년 안동교구 성소주일 행사

- 주제 :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레 1:8)
- 일시 : 4월 22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청년들
-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도시락, 돗자리, 식수, 명찰(달고 오기)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교구청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인동 본당 (견진성사)
- 5월 6일(부활 제6주일) : 사별타강 본당 (견진성사)
- 5월 13일(초급 수채 대축일) : 나영동 본당
- 5월 20일(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송 본당 (견진성사)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4월 23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심요섭 요셉(마산교구)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4월 27일(금)19:00 - 2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미혼남녀,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9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차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정물(십자가, 촛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청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가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청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일(화) 19:00 - 21:30
- 장소 : 교구청 잔디 광장 및 성모동산
- 주최·주관 : 안동교구 여성연합회
-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구성 : 묵주기도, 미사, 작은 음악회
- 준비물 : 깔개, 겹옷, 미사 준비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묵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낙동강 세평 비경길 (송부역 - 분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복부 정장훈 010-3827-2275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5월 18일(금)14:00-19일(토)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비,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 652-0591 / 010-2785-0591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안나의 집 가족과 함께 사일 어르신 모십니다.

- 내용 : 아름다운 삶, 따뜻한 동행, 행복한 안동 안나의 집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함께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여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기초수급자
- 주소 : 안동시 남후면 암산길 258-12
- 문의 : 054-859-1764 / 010-2242-1764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5차 성소 주일 담화

(2018년 4월 22일, 부활 제4주일)

주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8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총회에서는 젊은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의 관계,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논의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빌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모든 세대의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총회 예비 문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서문)이 되는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55차 성소 주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말씀께서는 다양하고 유일한 모든 개인적 교회적 성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의 талан트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 ‘경청하기, 식별하기, 실천하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와 시련의 시기를 보내신 다음에 나자렛의 회당을 방문하시어 당신 사명을 시작하신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성부께서 당신께 맡기신 사명의 내용을 식별하셨으며, “오늘”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루카 4,16-21 참조).

경청하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직후에 그 부르심은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면서 조용하고도 신중하게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생애를 깊이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낱알이 주의를 기울여,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읽고 성령의 놀라운 활동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예언자처럼 깊은 영적 침잠으로, 감지되지 않는 거룩한 바람의 속삭임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하느님 나라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1열왕 19,11-13 참조).

식별하기

우리 모두는 영적 식별을 통해서만 각자 지닌 고유한 성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삶의 현실에서 시작하여 근본적 선택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제2장 2).

우리는 또한 주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그분께서 어떠한 장소와 수단과 상황들로써 우리를 부르시는지 발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안에서 읽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사명 수행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디로’ 또 ‘무엇으로’ 부르시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천하기

우리가 하느님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에 마음을 열도록 해 주는 복음의 기쁨은 우리 게으름과 나태를 참아 주지 않습니다. 성소는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증언하고자 평신도의 혼인 생활로, 성품 직무의 사제 생활로, 또는 특별한 봉헌 생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한계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 목소리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식별하며, 마침내 하느님께서 주신 오늘 안에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의 젊은 여인으로서 하느님의 강생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여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2017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

프란치스코



살림터 이야기

엠마오 산행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부활절 행사가 끝나는 다음날 월요일, 우리 성당에서 희망하는 이들과 엠마오를 산행으로 정하여 가기로 했다. 속리산 문장대를 거쳐 백두대간 하이라이트인 천왕봉까지 두 코스를 등반하기로 신부님께서 결정하여 오늘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다.

천왕봉까지는 해발 1,058미터 1진 코스, 문장대까지는 해발 1,033미터 2진 코스로 정했다. 2진 코스로 마음먹었던 나와 이회장님의 거뜬한 산행실력에 칭찬받으며 1진으로 승급되어 천왕봉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 신선대 비로봉을 스쳐 지나면서 신기한 모양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산자락의 바위들이 하느님의 작품함에 감탄과 찬미를 드리며 즐거운 등반에 올랐다.

문장대의 봄은 이제 겨우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키 작은 노란 양지꽃만이 우리를 반길 뿐 수많은 진달래나무는 아직 잠자고 있고, 지난해 묵은 잎을 달고 있는 조리대나무가 산행길 좌우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새싹을 틔울 생각은 아직 멀고, 하늘에서 봄비를 내리야만 나무와 꽃들이 싹을 틔울 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표범나비 한마리가 나타나 길 안내를 하듯이 나를 앞질러 가며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산행이 시작되자 먼저 앞서 가신 다미아나 수녀님의 등반 실력에 모두 놀라워하였다. 문장대를 오르는 내내 만날 수가 없었고, 점심시간에서야 함께 하였으며, 천왕봉 봉우리에 서의 만남으로 수녀님의 실력은 달인으로 인정 되었다. 그에 뒤질세라 요안나 언니와 글라라 언니의 실력 또한 달인이었다. 나는 감히 따라 갈 수가 없었다. 요안나 언니 부부는 매일 새벽에 상주에 있는 천봉산을 오르신다고 했다. 매일 가벼운 산행은 건강한 몸과 마음까지 책임을 저주는 것 같아 나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천봉산을 오르기로 작은 다짐을 해보지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장대를 내려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1진 코스인 천왕봉까지의 등반이 시작 되었고, 그다지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문장대를 거치고 가다보니 조금은 힘에 부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멋진 작품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환호를 올려드렸다. 그러니 내 마음 속으로 메아리가 되 돌아왔다.

(다니3,5~) “주님의 업적들이 모두 주님을 찬미 하여라,” “산과 언덕들이 주님을 찬미 하여라.” “하늘의 새들이 주님을 찬미 하여라.”

천왕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아홉 개의 병풍이라는 구병산, 시루떡처럼 보인다는 시루봉, 책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문장대, 보살들의 기도산이라고 팔음산, 그 밖의 청아산, 백화산, 장승봉까지 산행을 하는 동안 산들의 박사라도 되신 듯 신부님께서 해설사가 되시어 우리들의 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셨다.

하산은 장승 마을 쪽으로 하기로 하였다. 스틱을 내게 빌려 주신 단장님과 다리가 후들거리며 찢찢 메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당신 무릎 보호대를 내 무릎에 감아 주신 신부님 덕분에, 가파른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하산하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했다. 일행들 중에 가장 힘들어 하였던 나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믿으면 행복하다는 평상시 우리 신부님의 말씀처럼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찾아보았다.

저녁 만찬을 예약해 놓은 자리에서도 우리 신부님의 아량은 계속 되었다. 당신의 리더로 이루어진 엠마오 산행을 잘 마친 모두에게 현금으로 시상을 내리셨다.

산멀미로 인하여 도중하차를 하게 된 두 자매님들에겐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엠마오에서 만났던 부활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마감해본다.

주님! 참으로 부활 하셨도다. 알렐루야~!